3강 꿈이나 사소한 실수들의 심오한 의미

1. 정신을 분석하는 세 가지 방법

◇ 환자들의 정신분석의 기본 규칙에 따르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떠오르는 관념들을 연구하는 것만이 무의식을 발견하는 유일한 기술적 방법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들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자들의 농담이나 실언 또는 우연한 언행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정신분석학에 관한 다섯 차례 강의』

-정신분석학의 기본 공식은 "기억하기 싫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개발한 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자유연상의 기법이다. 이것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뇌리에 떠오르는 관념들을 자유롭게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억압된 것, 즉 기억하기 싫은 것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

-두 번째는 환자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꿈의 상태에서 자아의 저항은 약화된다는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세 번째는 환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수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다.

"심리학 조사를 통해 꿈은 정상에서 벗어난 일련의 심리적 형성물의 첫 번째 구성 요소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 밖의 심리적 산물 중 히스테리성 공포증, 강박 관념, 망상은 의사가 실용적인 이유에서 연구하는 것들이다. 꿈에-나중에 알게 되듯이- 그와 유사한 실용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만큼 실례로서의 이론적 가치는 아주 높다. 꿈-형상들의 기원을 해명할 수 없는 사람은 공포증과 강박 관념, 망상을 이해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에서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2. 억압된 소망의 실현, 꿈.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생후 18개월 가량 된 아주 어린아이의 꿈을 조사해보면, 대단히 단순하며 설명하기 쉬운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낮에 품었던 소망의 실현을 꿈으로 꿉니다. 그런 단순한 문제를 푸는 데는 특별한 해석의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어린아이가 그 전날 겪었던 경험을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요. 어른의 꿈도 어린아이의 꿈과 똑같이 꿈을 꾼 날에 떠오르게 된 소망과 충동의 실현을 내용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꿈의 수수께끼에 대한 가장 만족스런 해결책일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른의 꿈은 내용이 대개 해석하기 어렵고 소망의 실현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 문제에 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꿈의 내용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꿈을 꾼 사람에게 내재하는 심리 과정을 말로 표현하면 원래의 내용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침에 깨어나서 어렴풋이 생각나는 꿈을 애써 말로 담아내는 꿈의 외현적인 표현과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꿈의 내용은 서로 크게 다릅니다.

이런 꿈의 왜곡은 앞서 히스테리 증상의 형성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꿈의 경우에도 히스테리 증상과 마찬가지로 역시 정상적인 힘들이 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꿈을 말로 표현하는 이야기는 무의식적 꿈의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하게 되는데, 이 왜곡이 생기는 이유는 자아가 지닌 방어력, 즉 저항력 때문입니다.『정신분석학에 관한 다섯 차례 강의』

-프로이트는 '잠재적인 꿈'(='잠재몽'='꿈-사고')을 독해하려고 한다.

-프로이트에게서 꿈은 억압된 소망과 충동의 실현이라고 정의된다. 다시 말해 억압된 것이 자아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의식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외현적인 꿈'에서 '잠재적인 꿈'으로 잠입하는 방식으로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방법은 자유연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외현적인 꿈의 내용에서는 꿈의 진정한 의미를 항상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꿈은 전날의 경험에서 출발하며 충족되지 못한 소망의 실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으로 알 수 있는 외현적인 꿈은 바로 억압된 소망의 위장된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종합해보면 무의식적인 꿈의 내용이 어떻게 외현적인 꿈의 내용으로 왜곡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꿈-작업'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이론적 관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꿈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독립된 심리적 체계 사이에서 예기치 않았던 심리적 과정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심리적 과정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응축'과 '전이' 과정입니다.『정신분석학에 관한 다섯 차례 강의』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3. 잠재적 꿈의 왜곡 과정, 꿈-작업.

-프로이트는 잠재적 꿈이 외현적인 꿈으로 왜곡되는 과정, 즉 '꿈-작업'에 주목한다.

-『꿈의 해석』에 따르면 '꿈-작업'의 주요한 메커니즘은 다음 다섯 가지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응축condensation, 두 번째는 전위displacement, 세 번째는 연극화dramatization, 네 번째는 상징화symbolization,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차적 가공secondary elaboration이다. 이 중 프로이트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응축'과 '전위'라는 메커니즘이다.

-'연극화'는 정확히 말해 꿈의 내용이 시각적 이미지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4. 꿈-작업이 가르쳐주는 정신의 구조와 기능

◇ 우리는 우리가 깨어난 후 꿈으로 기억하는 것이 실제 꿈의 과정이 아니라 그 배후에 꿈의 과정이 감추어져 있는 외형일 뿐이라고 가정함으로써, 꿈의 이해에 이르는 길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행했던 발현된 꿈-내용과 잠재적인 꿈-사고의 구별이다. 후자로부터 전자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꿈-작업이라 부른다.
우리는 꿈-작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 돋보이는 사례에서 어떻게 이드로부터 오는 무의식적 자료, 즉 원천적이고 억압된 것이 자아에 밀려들어오고 전의식적으로 되며 자아의 저항에 의해 우리가 꿈의 왜곡이라고 알고 있는 변화를 겪게 되는지 알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꿈의 성격이란 없을 것이다. 꿈-형성에는 두 가지 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의 확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한편으로 깨어 있을 때 억제되었던 본능적 충동(무의식적 소원)이 잠잘 때 강해져서 자아에서 관철된다. 아니면 깨어있을 때의 생활에서 남겨진 욕구, 즉 전의식적인 사고가 그에 따르는 모든 갈등적 충동과 함께 잠잘 때 무의식적 요소에 의해 강화된다. 따라서 꿈은 이드 아니면 자아로부터 온다. 두 경우 꿈-형성의 기제는 동일하며, 역동적 조건도 동일하다. 자아는 순간적으로 기능을 중당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감으로써 자신이 이드로부터 나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한다.『정신분석학 개요』

-꿈을 분석하면서, 프로이트는 인간 의식 내면 속에 복잡한 구조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한다. 우리가 명료하게 아는 것은 '의식'이란 영역이다.

-프로이트는 '의식' 영역 이외에 '무의식'의 영역과 '전의식'의 영역을 발견하게 된다. '무의식'을 담당하는 조직을 프로이트는 '이드'라고 명명하고, 반면 '전의식'을 담당하는 조직을 '자아'라고 명명한다.

-말년의 중요한 이론적 저작,『정신분석학 개요』(1940)에서 꿈은 두 가지 계기로부터 가능하다는 최종적 해명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계기는 본능적 충동으로부터 온다. 깨어있을 때 억제된 본능적 충동이 자아가 약해지는 수면 상태에 출현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계기는 전의식적 사고가 자아가 약해질 때 출현한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5. 일상생활에서의 실수 행위

◇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행위는 또한 거부나 자기 징벌의 목적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요컨대 물건을 잃어버림으로써 자기 곁에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주의도 역시 자기 자신을 거부해야 하는 소망을 실현하는 데 흔히 사용됩니다. 그것은 실수 행위 자체를 다행스런 사건으로 위장하려는 의도입니다.『정신분석 강의』

-실수 행위는 어떤 억압된 소망의 실현이다.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 다루어진 실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언어의 망각, 잘못 말하기, 잘못 읽기, 잘못 쓰기, 인상의 망각, 잘못 잡기, 착오 등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